

## 간호대학생의 동아리참여 자원봉사 경험

배경의<sup>1</sup>, 박정숙<sup>2</sup>, 양영옥<sup>3\*</sup>

<sup>1</sup>동서대학교 간호학과, <sup>2</sup>고신대학교 간호대학, <sup>3</sup>가야대학교 간호학과

## Experiences of Volunteer Group Activity among Nursing Students

Kyung-Eui Bae<sup>1</sup>, Jung-Suk Park<sup>2</sup>, Young-Ok Yang<sup>3\*</sup>

<sup>1</sup>Division of Nursing, Dongseo University

<sup>2</sup>College of Nursing, Kosin University

<sup>3</sup>Division of Nursing, Kaya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동아리 활동을 통한 자원봉사 경험의 의미를 알아보기 위해 현상학적으로 접근한 질적 연구이다. 2015년 5월 1일부터 6월 12일까지 3개 대학에서 동아리 활동을 하는 간호대학생 19명을 대상으로 자료수집을 하였다. 연구질문은 “당신은 간호학 전공자로서 대학생 동아리 활동을 통한 자원봉사를 하면서 어떤 경험을 하였습니까?”이었으며 1-3회 30-45분간 심층인터뷰를 하였다. 기록된 내용 분석과정에서 연구자들은 연구자간 상호일치성을 위해 3차례의 의미 재분석의 과정을 통해 연구자간 통합된 의미를 도출하여 연구결과의 타당도를 높였다. 연구결과는 ‘낯선 상황에 놓여져 힘들’, ‘한계에 부딪힘’, ‘뿌듯함이 밀려드는 대학생활의 쉼표’, ‘성숙한 인간관계로의 발돋움’, ‘변화된 나를 발견’, ‘전공으로의 접근’, ‘미래에 대한 자부심’의 7개 중심 주제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간호대학생의 자원봉사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위해 대학과 지역사회의 공동목표를 설립하고 해결해 나가는 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Abstract** This study is a qualitative research with phenomenological approach to investigate the meaning of the volunteer experience through group activities in nursing college students. From May 1 to June 12 2015, we collected data from 19 university students who participated nursing group activities at 3 universities and 30-40 minutes 1-3 times depth-interviews were conducted. Research question was, “Did you have any experience as a volunteer through club activities as nursing college students?” Results were obtained for seven central theme; ‘Hard to put in unfamiliar situations’, ‘Crash to limit’, ‘Pride encroaching in rest of college life’, ‘To become mature human relationships’, ‘Found changed myself’, ‘Access to the majors’, ‘Pride for the future’. Based on the these results, in order to continuous volunteer activities it is necessary to maintain introduce the program that establish common goals and can solve out of the university and community.

**Keywords** : Experiences, Group activity, Nursing, Students, Volunteer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오늘날 간호전문직과 간호사의 역할은 의료환경 및 건강체계의 변화, 의료수요의 급증, 대상자의 건강 요구 다양화 및 건강유지 증진을 위한 인식변화로 인해 확대

되었다[1]. 이러한 실무 발전에 따라 간호학생들도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사회와 대상자의 건강요구에 대처하기 위해 현명한 지혜가 필요하게 되었다[2]. 따라서 많은 대학에서 이러한 지혜를 함양하기 위해 교과과정과 임상실습 외에도 인간에 대한 헌신과 사랑에 대한 인성적 측면을 보충할 목적으로 사회봉사를 졸업을 위한 필수과정으로

\*Corresponding Author : Young-Ok Yang(Kaya Univ.)

Tel: +82-55-330-1083 email: iflover@kaya.ac.kr

Received July 31, 2015

Revised (1st September 1, 2015, 2nd September 10, 2015)

Accepted November 6, 2015

Published November 30, 2015

로 채택하고 있다[3]. 그러나 이러한 졸업과 취업 및 진학에 필수적인 과정으로 간주하고 있는 사회봉사 활동은 학생들에게 형식적인 봉사로 인식되어 대가없는 순수한 봉사를 하는 것에 가치를 두는 봉사에 대해 더 만족하는 경향이 있었다[4].

그런 의미에서 동아리 활동은 대학생이 대학생활에서 더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활동으로써 본격적인 사회봉사 활동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5].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 봉사 활동자를 늘리는 것도 지역사회와 개인의 건강과 행복증진에 도움이 되겠지만, 한번 시작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중간에 탈락하지 않게 하는 것은 간호사로서 역할을 다할 간호대학생의 인성발달과 함께 간호교육에 대한 만족도[5-6]에도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대학봉사 동아리 활동에서 간호대학생들이 어떤 경험을 하는지 탐색하여 계속적인 인성발달과 봉사동아리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1.2 연구목적 및 연구질문

- 연구목적: 간호대학생들의 동아리 활동을 통한 자원봉사 경험에 대해 탐색한다.
- 연구질문: 당신은 동아리 참여를 통한 자원봉사를 하면서 어떤 경험을 하였습니다가?

## 2. 연구방법

###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동아리 활동을 통한 자원봉사 경험의 의미를 알아보기 위해 현상학적으로 접근한 질적 연구이다.

### 2.2 연구참여자 선정

연구참여자는 P시 2개 대학과 G시 1개 대학에서 홀로 집에 사는 노인을 대상으로 방문간호를 실시하는 봉사동아리 활동을 하는 간호대학생이다. 먼저 봉사동아리 활동을 2년 이상 계속 해온 27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성격유형검사를 실시하고, 성격유형에 따른 자기성격유형에 대한 파악과 자기 성찰 훈련을 하였다[7]. 연구

자가 실시한 3일 동안의 자기성격유형에 대한 파악 훈련에 참여한 대학생들 대상으로 본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및 방법과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자의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 중에서 각각의 힘의 에너지 집단(장, 머리, 가슴) 별로 가장 많은 성격유형의 집단에 해당하는 자로 인터뷰에 동의한 19명으로 하였다 Table 1. 연구자는 사전에 성격유형검사 방법과 검증 방법, 성격유형에 대한 자기성찰 훈련에 대한 방법에 대한 토의를 거쳐 동일한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게 준비하였다.

Table 1.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ID	Age	Grade	Gender	Religion	Enneagram personality		Years in Volunteering
					type	state	
A	24	2	M	None	2	integ-rate	2
B	20	2	M	Christ-ian	2	split	2
C	21	2	F	None	2	split	2
D	21	3	F	None	2	split	3
E	22	3	M	None	2	integ-rate	3
F	23	4	F	Christ-ian	2	integ-rate	3
G	20	2	M	None	7	split	2
H	20	2	F	None	7	integ-rate	2
I	20	2	F	Christ-ian	7	integ-rate	2
J	20	2	M	None	7	split	2
K	21	3	F	Christ-ian	7	integ-rate	3
L	23	4	F	Christ-ian	7	split	3
M	21	2	F	None	9	split	2
N	20	2	F	Christ-ian	9	integ-rate	2
O	20	2	M	None	9	split	2
P	21	3	F	Christ-ian	9	integ-rate	3
Q	20	2	M	None	9	integ-rate	2
R	21	3	F	None	9	integ-rate	3
S	23	4	M	Christ-ian	9	split	3

### 2.3 연구참여자의 윤리적 고려

연구참여자에게 연구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연구참여를 통한 어떤 개인정보도 연구이외의 자료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연구참여 도중 연구대상자가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연구참여를 중단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개인정보는 수집되지 않으며, 추후 연구참여나 연구결과에 대한 문의를 할 수 있는 연구자의 연락처와 소속을 제공하였다. 3개 간호학과 봉사동아리 참여 대학생 중 2년 이상 봉사활동을 해 온 학생으로 총 19명이 참여하였다. 참여자의 허락후에는 본 연구에 자의의사에 의

해 참여하겠다는 서면동의서를 받았다. 본 연구자는 나이, 학년, 성별 등의 인구사회학적인 특성을 가진 참여자들을 고르게 선정하려고 하였으며 그들과 심층면담 후 자료분석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충분함과 적절함의 원리를 근거하여 인터뷰 내용이 같은 질문에 반복되는 답변이 형성되는 시점으로 참여자수를 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참여자수는 총 19명이었다.

## 2.4 연구자의 질적 연구 훈련

연구자들은 질적 연구 관련 수업을 이수하였으며, 년 1회 이상 질적연구 학술대회에 참여하였고, 질적연구소 연구회활동 및 질적연구학회에 참석하여 훈련을 받았으며, 질적 연구 경험이 있는 간호학 전공자 2인으로부터 연구의 준비와 제반준비,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검토받아 보완하였으며, 질적 연구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 함께 4회에 걸쳐 자료수집과 자료분석 과정을 검토받으며 연구를 진행하였다.

## 2.5 자료수집

자료수집기간은 2015년 5월 1일부터 6월 12일까지 총 19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심층인터뷰를 통해 자료는 수집되었으며 참여자별 인터뷰 횟수는 1-3 회였다. 모든 인터뷰는 연구자들에 의해서 실시되었으며, 인터뷰 내용을 녹음하여 여러 번 듣고 즉시 녹취를 하여 상황과 웃음, 중간의 비언어적 표현을 메모하면서 녹취하였다. A연구자가 9명, B연구자가 6명, C연구자가 4명의 참여자를 각각 30분간 1차 인터뷰 내용을 연구자들이 모여 녹취내용을 서로 교환하여 분석 검토하여, 같은 질문에 대해 상이한 내용이나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 질문 내용을 구성하여 질적 연구 자료 수집경험이 가장 많은 A연구자가 참여자중 6명을 대상으로 2차 인터뷰를 30분간 시행하여 추가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추가자료의 녹취 내용을 전체 연구자가 다시 모여 서로 교환하여 분석 검토하고 다시 불명확한 의미를 보이는 2인의 참여자의 경우, B연구자가 다시 3차 인터뷰를 45분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전체 연구자의 분석내용에 포함시켰다. 자료수집은 참여자의 인터뷰내용이 같은 질문에 반복되는 시점인 포화상태가 될 때 까지 시행하였으며 연구자들은 총 3차에 걸쳐 심층면담내용을 분석하고 검토하였다. 면담에 소요된 시간은 30-45 분이었으며, 심층 면담 전에 제차 연구의 목적과 취지,

녹음, 중간철회가능성과 개인신상에 대한 정보수집이 없음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 연구참여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 1차 면담장소는 연구자별로 간호학과 세미나실 혹은 동아리실에서 실시하였다. 심층면담을 위한 질문은 “당신은 간호학 전공자로서 봉사동아리 참여를 통한 자원봉사를 하면서 어떤 경험을 하였습니까?”, “봉사동아리를 가입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봉사활동을 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봉사활동을 계속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등의 개방형 질문으로 시작하여 참여자의 면담내용에 따라 자연스럽게 질문을 연결하면서 대상자의 봉사경험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2차 인터뷰는 A연구자 소재 간호학과 세미나실에서 실시하였으며 2인의 3차 인터뷰는 B연구자 소재 세미나실에서 실시하였다.

## 2.6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해석학적 현상학적인 방법 중 colaizzi[8]가 제시한 절차에 따라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과정은 다음과 같다.

1단계는 먼저, 간호 대학생의 봉사활동 경험에 대한 느낌을 얻기 위해 인터뷰 후 녹음한 내용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듣고 참여자의 언어를 그대로 필사하였다. 2단계에서는 필사된 내용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읽은 후 의미있는 단어나 문장에 밑줄을 긋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분석하였다. 3단계로 참여자의 진술 중 반복해서 나타난 의미 있는 진술을 연구자들이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진술로 만들어 의미를 구성하였다. 4단계로 연구자가 구성한 의미들을 참여자의 반응과 느낌에 초점을 맞추어 주제 및 주제모음으로 범주화하고 이들 주제가 원자료와 맥락의 일치 및 차별화가 있는지 등에 대해 연구자들이 모여 4차에 걸쳐 의견을 나누었다. 5단계로 분석된 자료를 본질적 주제에 따라 그 체험의 의미중심으로 하나의 기술로 통합하고 그 기술을 연구현상의 본질적인 주제에 대한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연구참여자들이 간호학과 대학생들에게 돌아가서 그들 경험과 일치정도를 확인하여 타당체 과정을 거쳤고, 연구자들 상호간의 검증을 받았다. 분석과정 전반에 걸쳐 연구자들이 3차례의 의미 재분석의 과정을 통해 상호일치성을 논의하여 연구자간의 통합된 의미를 도출하여 연구결과의 타당도를 높였다.

### 3. 연구결과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봉사동아리 참여경험의 의미를 7가지 구성요소로 도출하였다. 7가지 구성요소는 ‘낮선 상황에 놓여져 힘들’, ‘한계에 부딪힘’, ‘뿌듯함이 밀려드는 대학생활의 씬표’, ‘성숙한 인간관계로의 발돋움’, ‘변화된 나를 발견’, ‘전공으로의 접근’, ‘미래에 대한 자부심’로 이루어졌다 Table 2.

**Table 2.** The Experience of Volunteer Group Activity among Nursing Students : Themes and Sub-themes

Theme	Sub-theme
Hard to put in unfamiliar situations	Thrown into unfamiliar situation
	Hard and hate work
Crash to limit	Feel the regret from the person's situation
	How I regret not help
Pride encroach-ing in rest of college life	Encroaching pride after the end of volunteering
	Shelter and rest time from daily life
To become mature human relationships	Caring for others
	Meaning of socializing with people
	Understanding the different human diversity
Found change-d myself	Change in daily life
	Changes in thinking and awareness
	Found myself before I did not know
Access to the majors	Footstool to study hard
	Foundation of the majors
Pride for the future	Realized myself as a future nurse
	Continue to volunteer and being an opportunity to encourage

#### 3.1 낮선 상황에 놓여져 힘들

연구 참여자들은 낮선 상황에 놓여지고 힘들에 대하여 ‘낮선 상황으로 던져짐’, ‘하기 싫고 힘든 일’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다.

##### 3.1.1 낮선 상황으로 던져짐

연구 참여자들은 봉사를 통해 자신이 무언가를 얻을 것이라는 기대가 없었고 처음으로 대면하는 상황에 부딪혀 거절을 경험하였다. 처음으로 봉사활동을 나가게 되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당황하였다.

*O:* 처음에는 다른 의미 없이 해야 하는 봉사이기에

동아리에 들어서 꾸준히 하면 어떨까 하고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딱히 다른 기대도 없고 이유도 없이 봉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C:* 2학년 때 처음으로 재가봉사를 나가게 되어 할 줄 아는 것이라곤 활력징후 측정과 손 마사지 밖에 할 줄 몰랐고 가서 무얼 해야 하는지 잘 몰라 처음에는 많이 긴장했었습니다.

##### 3.1.2 하기 싫고 힘든 일

연구 참여자들은 처음으로 대면하는 상황에서 봉사활동이 생각보다 많이 힘들었고 쉽지 않은 경험이였음을 알게 되었다.

*M:* 첫 날에, 처음으로 아이들을 만났을 때 나의 생각보다 많이 힘들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첫날 5명이 봉사를 하러 갔는데, 아이들과 노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가 않았습니다.

*F:* 역지사지 해보자라는 식으로 말을 하긴 쉽지만 정말로 그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해보기는 쉽지 않거든요.

#### 3.2 한계에 부딪힘

연구 참여자들의 ‘한계에 부딪힘’에서는 ‘대상자 상황의 안타까움’, ‘내가 도울 방법이 없음이 안타까움’으로 이해하였다.

##### 3.2.1 대상자 상황의 안타까움

연구 참여자들은 열악한 환경에 있는 분들에 대해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방법을 몰라서 안타까움을 느꼈다. 대상자의 가족 이야기, 생활 이야기를 들으며 안타깝고 슬퍼하였다.

*K:* 거기에는 생활이 조금 힘드신 기초 수급자 분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에 가보면 환경이 정말 열악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가보면 너무 안타깝고 제가 도와드리고 싶은데 저는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지는 못하고……. 근데 할머니께서 “학생 또 와줘” 이렇게 말씀하시면 진짜 너무 마음이 아파요.

*A:* 재가봉사를 가서 할머니를 처음 뵈었는데 와주는 것만으로도 정말 기뻐해주셨고 그렇게 첫 봉사 4시간 정도를 할머니의 가족 이야기, 사는 이야기 등 많은 이야기를 들으며 안타깝고 슬펐지만 그럼에도 밝게 사시는 모습에 힘을 안 낼 수가 없었습니다.

### 3.2.2 내가 도움 방법이 없음이 안타까움

연구 참여자들은 대상자의 상황을 들으며 무엇인가를 해본 적이 없어서 너무 아쉬웠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너무 안타까웠다.

L: 구청이나 뭐 복지관 이런데서 자녀들이 어머니에게 돈을 주고 있지 않다거나 포기한다는 그 말 한마디면 되는데 그걸 안 해주어서 할머니가 돈도 못 받고 그렇다고 자식들이 그만한 용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연락도 안 되고 그래서 연락하면 피하고 막 난 그런 거 싫다고 엄마 혼자 알아서 하라고 귀찮다고 자꾸 그래서 저희가 그것 때문에 혹시 뭐 다른 방법 없을까 해서 저희 담당하시는 선생님한테 여쭙봤는데도 별 다른 방법은 없을 거 같다고 그렇게 말해서 그게 제일 조금 저한테는 안타깝게 기억 남는 거 같아요.

F: 나는 그래도 나라에서 받는 거라도 있지 나라에 참 고마운데 이렇게 못 받는 사람들도 많다 이라고 그분들은 왜 못 받아요. 신청하시면 되잖아요. 하니까 자식들이 그 기록이 남기 싫어서 원래 기초수급자 되려면 끊어야 된대요. 연을. 근데 일부로 연을 안 끊고 돈도 안주면서 적십자 이런데서 연계도 못 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몇몇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너무 안타깝고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싶기도 한데. 또 저희가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너무 안타까워요.

S: 그분이 혼자 사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해야 하지 단칸방에 얹혀 살아요. 방 한 칸에 월세를 주고 같이 사시더라고요. 나이가 많은 할머니 같은데 저희가 있을 때는 얘기도 잘하고 한번은 그 집주인 할머니가 없을 때 저희한테 안 좋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저희가 도와줄 방법이 없을까 하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어떻게 헤드릴 수 있는 게 없고 한계를 많이 느꼈어요.

### 3.3 뿌듯함이 밀려드는 대학생들의 쉼표

연구 참여자들의 ‘뿌듯함이 밀려드는 대학생들의 쉼표’에서는 ‘봉사활동이 끝난 후 밀려드는 뿌듯함’, ‘빡빡한 일상에서 벗어나 잠시 쉬어가는 쉼터’로 이해되었다.

#### 3.3.1 봉사활동이 끝난 후 밀려드는 뿌듯함

연구 참여자들은 봉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봉사를 돌아보며 너무 보람있고 즐거운 경험이었음을 느꼈고, 대상자들의 감사 인사를 받으며 뿌듯함을 느꼈다.

M: 그 날은 막내를 보느라 다른 아이들을 많이 못 봤었던 날이었지만, 마지막에 헤어질 때 막내가 나한테 인사를 해주는 것을 보고 집에 돌아가는 길이 너무 즐거웠어요. 이학년이 된 지금도 봉사를 꾸준히 가면서 예전에 내가 느꼈던 그냥 의미 없는 활동이 아니라, 정말 뜻 깊고 좋은 봉사를 하게 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해요.

N: 이렇게 내가 주는 만큼 얻는 것도 있고 마치고 나서의 보람, 나의 도움을 받고 좀 더 나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대상자들의 감사 인사를 받으며 뿌듯해 하는 것이 나를 봉사활동으로 자꾸 이끄는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3.3.2 빡빡한 일상에서 벗어나 잠시 쉬어가는 쉼터

연구 참여자들은 간호학과 공부라는 빡빡한 대학생활에서 잠시 여유롭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쉼을 얻을 수 있었고, 머릿속의 가득한 생각들을 잠시 잊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N: 대학생의 사회봉사활동은 저에게 빡빡한 대학생활을 잠시 여유롭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쉼터 같은 곳 같습니다.

S: 원래는 시험공부해야하고 과제해야하고 이런 시간인데 이런걸 잠시 치워놓고 뭔가 활동을 하잖아요.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뭔가 일주일 해오던 게 아닌 다른 걸 하니까 그게 좋았어요.

### 3.4 성숙한 인간관계로의 발돋움

연구 참여자들의 ‘성숙한 인간관계로의 발돋움’에서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나’, ‘사람과 어울리는 것의 의미’로 이해되었다.

#### 3.4.1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나

연구 참여자들은 자원봉사를 통해 노인들의 특성을 이해하게 되고 타인에 대한 관심의 중요성을 알 수 있었다. 대상자들의 말을 경청하고 공감하면서 대상자의 마음이 치유됨을 느꼈다.

F: 좀 톡톡대시는 분들도 많고 물론 친절하게 잘해주고 딸같이 여겨주시는 분들이 많지만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나이가 들면 점점 어려워진다는 말이 있듯이 괜히 막 자기한테 관심을 안주면 화를 내시고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진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고 친절하게 대하고 따뜻하게 대해주면 풀리거든요.

F: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할머니가 그런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속에 있는 감정들을 풀어내시면서 우울한 것들과 슬픔 같은 것들을 많이 순화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느낀 것들이 우울함이나 슬픈 감정 같은 것들을 모른 척 회피하거나 즐겁게 돌리려하는 것들도 나쁘다고 생각은 안하지만 그것보다 직접 말을 해서 표현을 하게 하고 그것을 경청하고 공감해드리면서 어르신들의 마음을 치유해드리는 것도 대화의 기술이고 봉사활동을 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 3.4.2 사람과 어울리는 것의 의미

연구 참여자들은 봉사의 원동력은 사람에게 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대상자들을 위해 많은 사람들의 숨은 노력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O: 힘든 대학생활을 보내면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은 봉사라는 것이 사람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제 생활에서 벗어나 남을 돕는다는 것이 일단 제 상황은 잇은 채 돕는 것에 전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깨달음도 얻을 수 있고 많은 사람도 만나볼 수 있는 그런 활동인 것 같습니다.

H: 00병원 봉사뿐만 아니라 XX병원에서도 환자의 기본 정보, 건강력 등을 수집한 자료를 정리하는 일을 하면서 보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의 노력을 볼 수 있었습니다.

#### 3.4.3 나와 다른 인간의 다양함을 이해

연구 참여자들은 다양한 사람들의 성향에 대해 알게 되고 어떻게 해야 하는 지를 어느 정도 찾을 수 있었다.

H: 봉사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능력이 향상되고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도 수용할 수 있는 기량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N: 진정으로 봉사정신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고 주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즉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환경적으로 불편한 사람들은 어떤 상태로 살아갈지 내가 앞으로 간호사를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면 좋을지에 대한 해답도 어느 정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봉사동아리를 하고 싶었고 하게 되었습니다.

### 3.5 변화된 나를 발견

연구 참여자들의 ‘변화된 나를 발견’에서는 ‘일상생활의 변화’, ‘사고와 인식의 변화’, ‘내가 모르는 나를 발

견’으로 이해되었다.

#### 3.5.1 일상생활의 변화

연구 참여자들은 대상자들의 따뜻한 마음에 봉사활동을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많은 자원봉사 경험을 통해 자신이 항상 부족함을 깨닫게 되었다.

F: 아이구, 내 딸 손녀 같은 딸내미들이 왔다면서 이런 거 뭐 어디서 나는거냐면서 힘들지 이리면서 학생들도 봉사활동 시간 채우러 오시는 것을 아시나봐요. 이렇게 안 해도 된다고 와서 그냥 앉아있는 거만으로도 저희를 좋아하시면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희가 더 열심히 준비하고 대충하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F: 갑자기 어느 순간 연락이 안됐는데 거부한다고 생각하고 안 찾아갔는데, 친구들이 생각하기에 결연이 끊어졌나 생각을 했어요. 알고 보니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하신 거예요. 애들이 1학년 밖에 없어서 잘 몰랐고 저도 신경을 잘 못 쓴 거예요. 나중에 연락드리니까 많이 위급하셔서 중환자실까지 갔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될 때까지 연락도 안 드리고 죄송하게 생각이 들고 관심을 가진다고 가졌는데 부족함이 많다고 느꼈어요. 생각이 좀 짧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 3.5.2 사고와 인식의 변화

연구 참여자들은 자원봉사를 하면서 봉사의 의미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자신을 성장시켜 준 활동을 알게 되었다. 자원봉사를 통해 주변을 돌아보게 되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

M: 봉사를 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았던 것 같다. 내가 이때껏 갖고 있던 마인드도 완전히 바뀌게 되고, 봉사에 대한 책임감이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봉사에 대한 생각이 완전 바뀌었어요. 막연히 '봉사가 좋다고 하니까 하는 거야'가 아니라, 내가 봉사를 하면서 정말로 보람을 느낄 수 있다는 것도 깨달았고, 봉사가 끝난 뒤에 많은 생각을 할 수도 있고.

F: 이런 것들에 비하면 의료서비스나 정책 같은 것에 그걸 하면서 적십자 분들이랑 얘기하다보니까 서비스 같은 것을 많이 알게 되고 만약에 내가 지역사회 간호사가 되면 그런 쪽으로 조금이라도 더 아니까 그런 식으로 잘 지켜드릴 수 있을꺼 같고 그리고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좀 다양하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S: 자원봉사하는 게 저한테는 터닝 포인트. 저한테는

바뀐 것도 많고 바뀌었고 주변을 돌아보게 됐고 그런 게 좀 생겨서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제 진로를 한번 생각도 하게 되고.....

### 3.5.3 내가 모르는 나를 발견

연구 참여자들은 자원봉사가 주는 것이라고만 생각했던 봉사가 주고받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로 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H: 봉사를 하면서 저는 봉사는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하는 사람이 오히려 받는 게 많은 활동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M: 막연히 '봉사가 좋다고 하니까 하는 거야가 아니라, 내가 봉사를 하면서 정말로 보람을 느낄 수 있다는 것도 깨달았고, 봉사가 끝난 뒤에 많은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정말 남들에게 내가 필요로 하는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 3.6 전공으로의 접근

연구 참여자들은 전공으로의 접근에 대하여 '공부를 열심히 하는 발판', '전공에의 밑거름'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다.

### 3.6.1 공부를 열심히 하는 발판

연구 참여자들은 마음이 따뜻한 대상자들로 인해 환자에게 먼저 다가가는 따뜻한 간호사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자원봉사에서 간호사의 활동들을 보면서 실습할 때 어떤 것을 배우게 될까 하는 기대를 하게 되었다.

M: 오래 입원하신 분들 같은 경우엔 매주 오는 나의 얼굴도 기억해 주셔서 시간이 지나니 먹을 것도 많이 챙겨 주시고 대화도 어느 정도 하고 지냈어요. 이를 경험하면서 환자에게 먼저 다가가는 따뜻한 간호사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N: 환자들과 간호사 선생님들 간의 관계를 보며 병원이 그리 삭막한 공간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고 약품 하나하나 차트 하나하나를 보면서 실습 맨 어떤 것을 배우게 될까 하는 기대심도 생기게 된 좋은 봉사활동이었어요.

### 3.6.2 전공에의 밑거름

연구 참여자들은 미래의 간호사가 되었을 때 자원봉사 경험을 떠올리면서 봉사, 희생 정신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봉사활동을 통해 전공지식이 강화되고 실무를 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였다.

R: 자원봉사는 나중에 간호사가 됐을 때, 간호사가 되면 돈을, 대가를 받잖아요? 그때는 대가를 받고 자의든 타의든 일을 해나가야 하고 환자를 보고 돈을 받고 하니까, 입학했을 때 가졌던 봉사정신 희생정신 하면서 무장해도 막상 가면 그렇게 안 될 것 같은데 그때도 자원봉사를 하면서 예전 마음을 되살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자원봉사인 것 같아요.

E: 1학년 때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잘 몰라서, 시키는 것 위주의 봉사활동을 하였다면, 이제 2학년 3학년 올라갈수록 전공지식이 부족하지만 조금씩 쌓여 이제는 불편하신 노인분들을 직접 찾아가서 알아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능동적인 면이 생겨 조금 더 알찬 봉사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H: 봉사를 하면서 간호사에게 제일 중요한 덕목인 인성을 갖추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고 병원에서 봉사하는 경우 간호사의 생활을 미리 보며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이 많으며 재가시설, 보육원에서 봉사를 하는 경우는 환자의 주요 나이층이 아동, 노인이기 때문에 졸업하고 병원에 취업한 것 신입 간호사여도 환자의 상태를 이해하고 환자를 능숙하게 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3.7 미래에 대한 자부심

연구 참여자들은 미래에 대한 자부심에 대하여 '미래의 간호사로서의 나를 봄', '봉사활동을 계속하고, 권유'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다.

### 3.7.1 미래의 간호사로서의 나를 봄

연구 참여자들은 자원봉사 경험을 통해 간호사가 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 어렵듯이 느끼게 되었고, 간호전문 지식과 기술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간절하고 도움이 되는지 알게 되었다.

D: 막 제 손으로 직접 도와드린 적은 없는데 말로 서도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이 점점 늘어나는 거 같아서 뿌듯함을 느끼면서 제가 더 많은 분야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간호학과에서 배운 지식들이 더 제 것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F: 또 거기서 일하시는 요양보호사나 간호사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은 자기 직업이고 항상 보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티를 내면서 이거 뭐지? 이런 것들을 하면 그분들도 나를 자부심을 가지고 하는 건데 그런 것을 좀 기분이 안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나중에 간호사가 돼서 임상에 나가서도 그런 비위가 상할만한 일들을 많이 마주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티를 내지 않고 간혹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는 것도 되게 필요하다는 것들을 생각했어요.

### 3.7.2 봉사활동을 계속하고, 권유

연구 참여자들은 자원봉사를 앞으로 계속 할 것이며 자신이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병원 속에서 간호사들의 모습을 통해 미래 간호사의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

N: 앞으로도 계속해서 해 나갈 것이고 그로 인해 더 발전하는 계가 되길 바래요.

G: 비록 가서 봉사자들이 하는 일은 병원 물품들을 닦고 청소하는 일에 지나지 않지만 병원 속에서 간호사들이 아침에 회의를 한다든가, 다른 의료진과 의학용어로 소통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앞으로 내가 견게 될 간호사라는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되는 기회가 된 거 같아요.

##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봉사동아리 참여경험을 분석하였으며, 공통된 주제를 확인한 결과 16개의 하위주제로 구성된 7개의 중심 주제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첫 번째 주제인 ‘낯선 상황에 놓여져 힘들’은 봉사활동을 시작하며 처음 대상자와 만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생각처럼 쉽지가 않아 힘들었으며, 가기 싫었던 경험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Hwang[9]의 노인목욕 봉사경험에서도 처음에 본인이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능력의 부족함 특히 전공지식의 부족함과 대상자 및 가족들 간의 미숙한 대인관계 등을 통하여 어려움을 겪는 것은 본 연구와 유사하였다. 심층면담을 통하여 분석한 결과 복지관 직원들도 간호대학생일 경우 처음부터 전공지식과 기술을 갖추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1학년일 때에도 활력징후 측정 등 준

비되지 않은 부분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런 과정에서 기술이 미숙하여 봉사대상자에게 거절을 당할 경우 지속적인 봉사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그러므로 저학년 간호대학생의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위하여 학교와 봉사기관 간에 학년별 봉사활동 범위에 대한 사전조율이 필요하다.

두 번째 주제인 ‘상황적 한계에 부딪힘’은 대상자를 이해하게 되면서 대상자의 현재 상황을 안타까워하고 간호학생으로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음을 아쉬워하게 되었다. 대학생들은 자신의 봉사를 통하여 실제 타인의 복지가 얼마나 향상되고 어떤 성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되고 그 결과에 따라 더욱 봉사활동에 동기가 부여되게 된다[10]. 그러한 점에서 자신의 봉사활동만으로 해결해 줄 수 없는 대상자의 현 상황에 대해 공감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음을 느끼는 것이다. 따라서 봉사대상자가 소속한 기관이나 조직에서 이러한 상황적 한계에 대한 파악이 이루어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중재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과정 등이 더욱 봉사를 지속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는 간호대학생이 사전 준비 단계에서 대상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학습하는 경험을 하며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능력이 향상됨을 알 수 있다[9]. 실제로 이러한 과정은 임상간호실습에서 간호대상자를 사정하고 문제를 파악하여 간호를 계획하는 임상적인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11]. 봉사활동 프로그램이 아닌 교과과정내의 프로그램이기는 하지만 지역사회 의 간호문제를 실제로 사정하고 이를 팀별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와 기관간의 협조가 필요한 문제를 나누고 단계적으로 해결하는 경험은 학생들에게 매우 실제적인 경험이 될 것이다[12].

세 번째 주제인 ‘뿌듯함이 밀려드는 대학생활의 씬표’는 어려움을 겪은 봉사활동이 끝난 후 보람을 느끼며 봉사활동 자체가 대학생활의 여유가 될 수 있었다. 많은 대학생들이 봉사활동은 자신의 이익보다는 어려운 이웃을 돕거나 사회발전에 기여 또는 새로운 경험을 목적으로 봉사를 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런데 봉사과정에서 자신의 봉사활동을 받은 수혜자가 즐거워하거나 고마움을 표현하면서 그 봉사 자체를 즐기게 되고 지속적으로 봉사에 참여하는 새로운 동기부여가 되었다[10]. 이는 간호대학생이 봉사를 시작할 때 자신이 대상자에게 뭔가를 해준다는 입장에서 봉사를 통해 대상자와 자신이 상호교



류됨을 느끼는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네 번째 주제인 ‘성숙한 인간관계로의 발돋움’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게 되고 다양한 사람과 어울리는 방법을 알면서 다른 사람의 다양함을 이해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실제로 Park[13]은 대학생들이 봉사대상을 선택할 경우 노인보다는 어린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노인봉사를 참여하면서 노인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어 부족한 노인 간호학 실습을 대처하기 위하여 노인봉사를 프로그램화 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하였다. Ro와 Park[14]의 노인복지관 봉사경험에서도 상업사회로 전환되면서 부정적이었던 노인에 대한 이미지가 푸근하고 정겨우며, 노인 간호의 본질을 깨닫게 되었다고 보고하여 봉사활동을 통하여 많은 봉사 대상자와 그의 가족, 봉사관련자들과의 만남으로 인하여 인간을 이해하는 폭이 점점 커지게 되었다.

다섯 번째 주제인 ‘변화된 나를 발견’은 봉사활동을 준비없이 시작하면서 처음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경험하고 힘들었지만 차츰 봉사활동을 즐기게 되고, 대상자와의 의사소통을 통하여 그들의 처지를 이해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봉사활동을 가기 전에 준비성이 길러지고 책임감을 느끼면서 자신이 미처 알지 못하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단계이다. 여중생의 봉사경험에서 노인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통하여 자신이 사회에 꼭 필요한 존재라는 인식과 함께 자신감이 증가되면서 진로결정 수준이 향상되었다는 보고도 있었다[15].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봉사경험에서도 봉사활동을 통한 자기 자신의 재발견은 모든 봉사자가 경험하는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발견이 되기도 하였다[5,9,13,15].

여섯 번째 주제인 ‘전공으로의 접근’은 간호대학생이 봉사활동을 통하여 환자에게 먼저 다가가는 따뜻한 간호사가 되어야겠다는 마음이 생기면서 간호사가 되어서 순수하게 봉사하던 지금의 모습을 떠올리며 전인간호를 실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됨을 알 수 있었다. 간호대학생 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생들도 자신들의 전공지식을 자원봉사를 통하여 타인에게 제공하면서 전공에 대한 자신감과 기초지식을 더 쌓아가는 경향이 있었다[4]. 이러한 점을 활용하여 많은 대학에서 대학생들로 하여금 자원봉사 활동에 자연스럽게 참여하도록 하여 전공에 대한 동기부여 및 기초지식을 쌓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교양과목에 자원봉사를 포함하기도 하였다[16].

일곱 번째 주제인 ‘미래에 대한 자부심’은 봉사활동을 통하여 간호사로서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할 지를 느끼고 간호직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직종임을 인식하면서 간호직에 대한 자부심이 생기는 단계이다. 이는 많은 대학생들이 전공중심의 봉사활동을 선호하는 이유가 전공에 필요한 기초지식과 기술을 경험하기 위함인데 오히려 봉사활동을 통하여 간호직이 사회에 필요한 직업임을 인식하여 직업에 대한 존중감이 생겼음을 알 수 있다. Shin[16]의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이 봉사활동을 통하여 직업존중감이 증가하고 전공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여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또한 교수와 학생,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참여자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사회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 봉사 학습 프로그램 개발이 요청된다고 하였다[17].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자원봉사 경험을 현상학적으로 접근한 결과 ‘성숙한 인간관계로의 발돋움’, ‘변화된 나를 발견’, ‘전공으로의 접근’ 등의 일반적인 전공중심의 봉사경험에서 느끼는 경험 외에 ‘낮선 상황에 놓여져 힘들’, ‘뿌듯함이 밀려드는 대학생활의 쉽표’, ‘상황적 한계에 부딪힘’, ‘미래에 대한 자부심’을 새롭게 도출하였다. 봉사 활동 초기에 경험하는 ‘낮선 상황에 놓여져 힘들’과 상반되는 개념인 ‘뿌듯함이 밀려드는 대학생활의 쉽표’는 봉사활동 지속성을 결정하는 갈등과정이므로 이 단계를 극복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봉사과정에서 자주 경험하는 ‘상황적 한계에 부딪힘’은 개인의 노력보다는 팀별, 기관과 학교, 지역사회 등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더욱 봉사활동 뿐만 아니라 간호직에 대한 자부심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 연구는 3개 간호대학교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아리 봉사활동을 통한 경험을 새로운 시각에서 개념을 도출하였다는 것에 의의를 둘 수 있다.

##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동아리 활동을 통한 자원봉사 경험의 의미를 알아보기 위해 현상학적으로 접근한 질적 연구이다.

연구결과는 ‘낮선 상황에 놓여져 힘들’, ‘상황적 한계

에 부딪힘', '뿌듯함이 밀려드는 대학생활의 씬표', '성숙한 인간관계로의 발돋움', '변화된 나를 발견', '진공으로의 접근', '미래에 대한 자부심'의 7개의 중심 주제를 도출하였으며, 이는 16개의 하위주제로부터 구성되었다.

결론적으로 간호대학생은 대학동아리 활동을 통한 자원봉사 경험을 통하여 처음에는 새로운 상황과 낯선 사람과의 만남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지속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통하여 대인관계 확장과 전공에 대해 접근과 간호전문직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도움을 줄 수 없는 한계에 대한 안타까움을 느끼기도 하였다.

이러한 간호대학생의 자원봉사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위해 대학교와 지역사회 공동의 협조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공동목표를 설립하고 해결해 나가는 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 References

- [1] L. M. Thompson, S. Jarvis, P. Sparacino, D. Kuo, S. Genz, "Perceptions of Health Equity and Subjective Social Status among Baccalaureate Nursing Students Engaged in Service-Learning Activities in Hawaii", *Journal of Medicine and Public Health*, Vol. 72, No. 10, pp. 339-345, October, 2013.
- [2] S. Kwon, Y. Tae, "Christian Nursing Students' Experience of Spiritual Nursing Practice", *Journal of Qualitative Research*, Vol. 14, No. 2, pp. 92-104, November, 2013.
- [3] H. H. Chin, "A study of Voluntary Activities of Undergraduate",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Graduate School of Industry and Information, Mokwon University, Master's Thesis, 2001.
- [4] Y. Kim, "The Research of the Recognition of Nursing Student about Voluntary Activity", *Journal of Psychology and behavior*, Vol. 2, No. 2, pp. 47-59, 2010.
- [5] Y. M. Kwon, H. J. Joo, K. M. Cho, "A study on College Nursing Students' Volunteering Activities, Volunteering Motivation and Needs, Sociability and Satisfaction in their Major",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0, No. 1, pp. 20-32, 2004.
- [6] A. Hakim, "Nursing Students' Satisfaction about their Field of Study", *Journal of Advances in Medical Education and Professionalism*, Vol. 2, No. 2, pp. 82-87, April, 2014.
- [7] H. K. Kim, "How to Treat the Passion of Enneagram Type 6", *Journal of Qualitative Research*, Vol. 15, No. 1, pp. 63-76, May, 2014.
- [8] P. Colaizzi, *Psychological research as the phenomenologist views it*. In R. Valle & M. King. (Eds.). *Existential phenomenological alternatives for psycholog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78.
- [9] S. S. Hwang, "A study on Nursing Students Volunteer Experience in Visiting Ambulatory Bathing Service", *the Journal of Korean Community Nursing*, Vol. 15, No. 2, pp. 308-322, 2004.
- [10] J. Kang, "Factor Analysis of Participation Motivation, Recognition and Reward Affecting the Continuance Will of University Student Volunteer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 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3, No. 12, pp. 5728-5737, 2015.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2.13.12.5728>
- [11] J. A. Kim, J. Ko, "A study on Clinical Reasoning Ability and Academic Achievements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 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6, No. 3, pp. 1874-1883, 2015.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5.16.3.1874>
- [12] S. Bassi,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Perceptions of Service-learning through a School -based Community Project", *Nursing Education Research*, Vol. 32, No. 3, pp. 162-166, 2014.
- [13] K. Park, "Factors influencing Attitudes toward Elders by Volunteer Baccalaureate Nursing Students", *Journal Korean Gerontology Nursing*, Vol. 14, No. 3, pp. 191-199, 2012.
- [14] S. O. Ro, I. S. Park, "Nursing Student Service Experience at Elderly Welfare Agency", *Chunnam Journal of Nursing Academy*, Vol. 7, No. 1, pp. 57-73, 2004.
- [15] J. Lee, N. Kwein, S. Yoon, "Effects of a older Volunteer Activity on the Career Development of Girl's Middle School Student - Career Attitude Maturity, Career Decision Level-",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2, No. 10, pp. 4322-4327, 2011.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1.12.10.4322>
- [16] M. Shin, "Effect of Volunteering, Self-esteem and Job-esteem on Major Satisfaction among Nursing Stud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Contents*, Vol. 13, No. 11, pp. 1024-1035, 2013.  
DOI: <http://dx.doi.org/10.5392/JKCA.2013.13.11.1024>
- [17] K. A. Chung, H. J. Jang, "Effects of Elderly Care Voluntary Program on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7, No. 2, pp. 200-207, August, 2011.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1.17.2.200>

**배 경 의(Kyung-Eui Bae)**

[정회원]



- 2000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06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08년 3월 ~ 2014년 2월 : 가야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2014년 3월 ~ 현재 : 동서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간호학, 간호교육, 여성건강, 에니어그램

---

**박 정 숙(Jung-Suk Park)**

[정회원]



- 2005년 2월 : 고신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0년 2월 : 고신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2년 3월 ~ 현재 : 고신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관심분야>

모성간호학, 노인간호

---

**양 영 옥(Young-Ok Yang)**

[정회원]



- 1992년 2월 : 부산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02년 2월 : 부산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4년 3월 ~ 2016년 2월 : 경남간호사회 학술위원
- 2007년 3월 ~ 현재 : 가야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간호이론, 간호대학생, 간호교육, 임상수행능력